



가톨릭신문사

(04996)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7길 11 7층
☎ 02-778-7671~3 Fax 02-2299-2170 ctp@catimes.kr

2021.08.25

수 신 : 수원교구 사무처장 양태영 신부님

참 조 : 수원교구 홍보국장 김승만 신부님

제 목 : '포스트 팬데믹과 한국천주교회 전망에 관한 의식 조사' 협조요청

† 찬미 예수님

수원교구민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수원교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톨릭신문사는 우리신학연구소와 함께 '포스트 팬데믹과 한국천주교회 전망에 관한 의식 조사'를 실시합니다.

가톨릭신문사는 이번 의식 조사를 통해 팬데믹 시대에 불거진 한국교회의 문제점과 한계를 되짚고 향후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역할에 대한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의 의견을 모으고자 합니다. 가톨릭신문사는 의식 조사 결과 보도와 함께 이를 토대로 다양한 기획을 마련, 한국교회가 나아갈 새로운 사목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한국교회의 쇄신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신학적, 사목적, 교회론적 방향에 대한 나침반이 될 이번 의식 조사에 수원교구 사제단과 수도자, 교구민이 적극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조사기간: 2021년 8월 23일 ~ 9월 5일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조사

■참가대상: 모든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

■참가방법: 구글 설문지 <https://bit.ly/3IX9yxi> 접속 후 응답

QR 코드



가톨릭신문사 사장 김문상 디오니시오 신부

